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



Tel. 213-739-0403

WWW.CHDAILY.COM

E-mail: chdailyla@gmail.com

THURSDAY, November 7, 2019 Vol. 694

남가주 찾은 기부천사 션 "행복은 나눌수록 커져요"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나눔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성황



가수 션의 간증과 신나는 공연으로 하나됐던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2019년 남가주 밀알의 밤이 '하 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지난 1일부 터 3일까지 사흘 동안 ANC 온누리 교회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개최됐다.

올해 밀알의 밤 메인 게스트로 초청된 '션' 집사는 가슴이 따스해 지는 간증과 신나는 공연으로 함께 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다.

가수 션은 한국 최고의 '기부천 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수 많은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을 감 동적이고도 유쾌하게 묘사해 참석 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 의 말을 아끼지 말라'는 말로 간증 을 시작한 션 집사는 아내인 배우 정혜영과 결혼하던 날 '하루 만원 씩 기부하자'고 약속했던 이야기부 터 필리핀에 살고 있는 '클리리제' 를 한 달 3만 5천원 씩 후원한 사연, 컴패션을 통해 1천 4백명의 아이들 을 후원하는 기쁨, 아이티 지진 피 해자와 북한, 우간다에 있는 고아 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야 기, 한국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 인 '푸르메 재활병원'을 건립한 사 연 등을 영상을 곁들여 생동감있게 소개했다.

특히 그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 진다"며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간증하며 나눔의 삶으로 초대했다.

올해 밀알의 밤에는 목회자 자녀 로 이분척추증(Spina Bifida)을 앓 고 있는 '강라언' 어린이가 어머니 강미배 사모와 함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분척추증은 동양인으로는 10 만 명 중 1~2명이 걸리는 신경관 결함 질환으로 선천성 기형을 갖 고 태어나 응급실을 빈번히 드나들 면서도 천사 같은 웃음으로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라언이로 인해. 라 언이 가족은 질병을 축복으로 받아 들이고 가족 모두가 기도로 어려움 을 이겨나가고 있다.

>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청소년 자살률 최근 10년 사이 56% 급증

미국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7 년 사이, 10~24세 청소년들의 자살 률이 56%나 급증했다고 미국 크리 스천포스트가 미 질병예방통제센터 (CDC)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자살 건 수가 피살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 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들의 자살 로 인한 사망 건수가 자동차 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 다음으로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와 20~24세의 경우, 살인 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3번째로 많 았고, 10~14세의 경우는 5번째로 많 았다.

보고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자살율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 2007년부 터 2017년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의 증가율은 2013년부 터 2017년까지 연평균 7% 증가했

으며, 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

또 "15세부터 19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 자살률이 2000년부터 2007년 까지는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2007 년에는 10만 명당 6.7명에서 2017 년 10만 명당 11.8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DC는 향후 10년 동안 자살률은 10만 명당 6.8명에서 10.6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샐리 커틴 (Sally Curtin) 박사는 NPR과의 인 터뷰에서 "자살하는 추세가 늘어나 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의 증가율도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 혔다.

CDD의 최고의료책임자 알렉스 크로스비(Alex Crosby)는 CBS 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사망율 이 증가하는 요인을 단 하나로 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자살예방행동연맹(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

tion)의 콜린 카(Colleen Carr) 대표 는 한 의료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 살예방의 노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들의 자살률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 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살은 한 가지 요인이 아 니라 정신건강의 상태를 포함한 여 러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사회적,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문제 등 우리가 평생 경험하게 될 중요한 상황적 요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NEWSONG MINISTRY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의 회복과 문화회복을 위해 집회사역과 You Tube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문화사역단체입니다.

문화사역단체 SONG MINISTRY MM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파트

찬양팀 _ 찬양인도자, 보컬(남,여) **악기팀** _ 일렉기타, 세컨건반, 어쿠스틱 기타 미디어팀 _ 디자인, 영상편집, 사진 음향 엔지니어

자격조건

세례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문화사역에 헌신할 분

사역초청 및 문의

Sarah Hwang 간사: 714-742-0161

newsong_ministry

newsongministryla@gmail.com

NEWSONG STUDIO

전 문 음 악 학 원

찬양 반주 집중 레슨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CCM 반주법

밴드 앙상블 수업

라이브 녹음, 앨범 제작

연습실 대여

714-737-7071 GRACEBAEK417



newsongstudiooc@gmail.com 7050 Village Dr. #1-2 Buena Park, CA 90621

"선교적 사명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교 사명 감당하겠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 개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에서 환영인사를 전하는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에서 특별 찬양하는 미주 장신 콘서트 콰이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 상명. 이하 미주장신대)가 개교 42 주년을 맞아 지난 4일 나성영락교 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학교 동문을 비롯해 지역교회 목 회자들과 리더들이 참석한 후원의 밤은 이상명 총장의 환영사와 학교 소개 및 비전소개, 이규화 전도사(미주장신 재학생)의 간증, 원격교육 원 디렉 강우중 교수의 후원 요청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주장신 찬양팀이 인도하 는 뜨거운 찬양과 동문 특송, 재학 생과 교수가 함께한 콩트, 재학생 간증, PTSA 비전메이커 영상, 미주 장신 콘서트 콰이어의 공연 등 짜임 새 있는 순서가 돋보였다.

이상명 총장은 환영사에서 "2012 년 총장 취임 이후 학교 발전을 위 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모 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 심이었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 을 것 수많은 어려움 또한 해결해 주셨다"며 "미국 신학교가 흔들리 며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미주장신 대가 든든히 서가고 발전할 수 있 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 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미주 장신대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신학교"라고 소개하며 "선교적 영성과 바른 목 회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독교 리더 를 배출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 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

그는 또 "미주장신대는 총장이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 들어 나가아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며 미주 장신대의 발전 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 했다.

이 총장은 "미주 장신대는 선교 지향적 한인 신학교로서 글로벌 리 더십 교육과 양질의 신학교육으로 훈련된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온 캠퍼스 교육으로 미 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도 양질 의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소 개했다.

그는 "미주 장신대는 아름다운 학 문 공동체이자 경건한 신학 공동체 로, 학교가 가진 장점을 통해 신학 이론과 실천을 교육하며 전 세계 한 인 디아스포라 섬기는 신학교로 나 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7년 설립 이후 미주장 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 서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 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 인 선교 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했 다. 2011년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17년 11월에는 한인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철학박 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과

정을 개설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 기도 했다.

현재 신학 학사(B.Th.), 교역학 석사(M.Div.),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MACCP), 선교학 철학박사 (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과정이 있고, 학사 및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또 학사 학위의 경우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 어, 영어권 다민족들에게도 다가 서고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 지한 학사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 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 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나눔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성황"이어]

라스베가스 비전교회를 섬기 는 강미배 사모는 "처음에는 '그런 희귀 질환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 게 찾아왔는가?'라는 의문과 실망 감이 있었지만, 이내 모든 것이 하 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으며, 그 의 창조 섭리는 조금의 오차도 없 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서, 라언이의 질병은 가족 모두에 게 주신 축복 중 축복이 되었다"라 고 고백하며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2019 밀알의 밤에서 얻어진 수 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0년 도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 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

남가주 밀알 이준수 목사는 "2019 밀알의 밤은 밀알을 열렬히 사랑하 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베푸시 는 그 크신 '은혜'를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다"며 "모든 출연 자들과 스탭진의 헌신적인 노고와 여러 후원자 분들의 값진 참여와 성 원으로 성공적인 밀알의 밤 행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 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 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 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 록 기도해 달라"며 "앞으로도 밀알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인 남가주 밀알 수어 찬양단

선교단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 음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 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 들에게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 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2,387,000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미주 장애인 장학생 9명과 근로복 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8명, 제3 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 선 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긴급지 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 명에게 \$153,200의 장학기금을 지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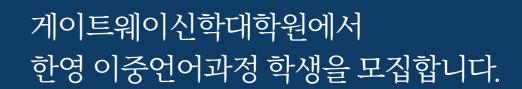


•BPPE 신규 및 재승인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иж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213)531-7215, (213)833-8208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www.gs.edu/keb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로 종합대학 교두보 마련

2019 후원의 밤 갖고, 기독교 전문 인재 육성 다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 사)가 지난 2일, 옥스포드 팔래스 호 텔(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 한 '간호학과 신설 기금 마련을 위 한 2019 후원의 밤'에 2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해 기독교 종합대학 을 향한 월드미션대학교의 비전에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올 가을학기 에 RN to BSN 과정 신입생 20명을 모집했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전문지식을 갖춘 한인 간호사 양성 을 위한 내실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간호학과 신 설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발전하 는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내 부족한 전문 간호인력을 배출하 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보살피고 섬 기며 기독교인의 의무와 사명을 실 천하는 장을 열 계획이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한 150여 명의 신입생을 비롯 해 라틴, 중국어 프로그램 활성화, 온라인 코호트 프로그램의 확대 등 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종합대학으 로 뻗어나가는 비전에 기도와 협력 을 당부했으며, 후원자들은 큰 박수 로 화답했다.

임 총장은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 의 진리와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면 서 동시에 이런 각종 변화에 능동적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2일, 옥스포드 팔래스 호텔(Oxford Palace Hotel)에서 '간호학과 신설 기금 마련을 위한 2019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으로 대처하고 주도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며 "변화의 시대를 리드하 는 월드미션대학교'는 간호학과 신 설을 바탕으로 기독교 종합대학으 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지고, 한국어 중심의 교육을 넘어, 라틴 프로그램 을 통해서는 스페인어, 중국인 학생 들을 위한 중국어 통역, 향후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론과 현장 경험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 합하는 기독교 전문 인재를 육성하 겠다"라고 밝혔다.

후원의 밤은 총장 환영사에 이어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 제프 코 렐라(Jeff Colella) 교수가 클래식 재

즈 트리오로 특별 무대를 선보였으 며, 간호학과 소개 영상과 오정기 교수의 '21세기 간호 교육에 있어 서의 도전과 혁신' 기조연설, 대외 협력처장 이금희 교수의 1110 기부 릴레이 안내가 이어졌다.

특별히 이날 장한 동문상에는 지 난 2017년 5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기 전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북 한 보안기관에 의해 체포돼 1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김학송 목 사가 수상했다.

김학송 목사는 2004년, 월드미션 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양선교교회에서 2005년 목사 안 수를 받고 2014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평양과기대에서 농업연구 를 해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 마중 나오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본교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준 것을 치하하며 김 학송 목사의 장한 동문상 수상 배경 을 설명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목 회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은 전 도사가 '임동선 설립자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해 설 립자 장학금을 받게 된 최은 전도사 는 졸업까지 등록금의 50%에 해당 하는 설립자 장학금을 받게 되는 영 예를 누리게 됐다.

임동선 장학금은 고 임동선 목사 가 모든 사재와 생명보험까지 기탁 해 현재 55만 달러의 장학기금이 마 련돼 있으며, 고 임동선 목사의 자 녀들이 목회자와 기독교 사역자를 배출한다는 비전으로 100만 달러 장학기금 마련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후원의 밤은 윤성환 이사장 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 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 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 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 으로 오늘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 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 성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빌립보교회 성전 이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될 것"



빌립보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빌립보교회(담임 신상원 목사) 교회의 힘찬 도약을 선포했다. 가 한인타운 111 N. Virgil Ave, L.A.로 성전을 이전했다.

감사예배를 통해 30년간 교회를 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교

이날 "두렵도다 이곳이여"(창 의 색소폰 연주, 김정화 목사, 김 28:16-19)라는 제목으로 설교 빌립보교회는 지난 3일, 이전 한 신상언 목사는 "빌립보교회

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 린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를 누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빌립 보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 다.

신 목사는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영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연약 이 빌립보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며 찬 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주지명 집사 의영 권사, 차청아 집사가 특별 찬양을 불렀고 이세호 목사의 축 도로 마쳤다.



극빈한 가정을 심방해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사역 관련기사 4면 목사의 선교칼럼'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이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최: **크리스천비전신문사** 대상: 목회자, 선교사, 사모, 평신도 리더 강사: 김영관 목사

등록: 선착순 100명 / 등록비: 무료(뷔페식 점심 제공) 주관: 세계제자훈련선교회

후원: OC한인여성목사회 / 비전복음방송(AM1540) 문의: (323)934-7500 / (714)390-9197

"쁄라(Beulah) 공동혜와 의의 나무 사역(3)"

쁄라 공동체를 담당하는 이주 혁 조지혜 선교사 부부를 만난 첫 느낌은 참 신선했다.

어떤 말을 해도 꾸밈없이 진 솔하게 전하는 말들과 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복귀한 후 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 그들이 공동체에 와서 발전시 킨 사역이 의의 나무 사역이다. 뿐따 꼴리넷 마을의 어린이들 을 하나님이 세우실 의의 나무 로 보았다.

필자가 갔을 때 유난히 표정 이 밝고 총명해 보이는 한 소년 이 눈에 띄었다. 이주혁 선교사 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

자신들이 이곳에 부임해 와서 어린이 학교인 "하나님의 은총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 고 올 때 그 소년은 수용 대상 이 못되었다. 가정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 아이 는 그 동네서 구걸을 하며 하루 하루 비참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주혁 선교 사가 공동체로 데리고 올 아이 들을 차에 태우고 공동체 안에 와 보니 그 구걸을 하던 소년 아 이가 아이들 틈에 살짝 끼어 몰 래 차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단 다. 발런티어들과 자원 교사들 이 그 소년은 불량하고 구걸하 는 아이라 하여 돌려보내려 했 다. 마음이 착하고 고운 이주혁 선교사 내외는 그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발런티어 교사들을 설 득하여 그 아이가 공동체 학교 에서 잘 적응하는 전제로 그날 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래 친구들의 학업 수준을 곧잘 따 라가고 선생님들을 잘 돕고, 성 격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회복 이 일어난 것이다, 이 선교사 내 외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세우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그 힘든 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확신하 심방의 사역을 매일 6가정씩 정 며 돌보고 있다.

의 자녀들은 쁄라공동체와 함 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맡겨 주 께 소망과 믿음의 자녀들로 변 신 의의 나무 사역을 열심히 해 화하고 있었다.



이상훈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필자는 그 소년의 1년 후의 모 습을 기대한다. 그 아이들의 1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들 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 이고, 또한 자신들이 누구에겐 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 녀들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 한편 이 선교사 내외가 주 력하는 사역이 있다. 가정환경 이 극도로 열악한 빈민가정을 찾아 날마다 심방하고 위로하 는 사역이다.

엘에이 아버지창고에서 2주 간마다 공급받는 음식들을 가 정의 상황별로 미리 챙긴다. 아 이들과 가족의 수대로 음식량 을 조절하고 공동체의 발런티 어 사역자들과 자녀들 중에 따 라가고 싶은 아이들을 모두 차 에 태운다.

이 선교사의 말인즉, "목사님! 저는 심방 가는 것을 축제같이 생각합니다."하며 그 이유를 설 명했다. 늘 홀로 허름한 집 안에 서 거동도 잘 못하는 어른들이 나 환자들이 있는 가정들을 찾 아가는 데 아이들을 포함해 여 러 사람이 그 가정을 찾아 그들 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들을 위로하는 것을 심방받는 분들이 좋아한단다.

외로운 사람들, 소망 없이 살 아가는 사람들, 먹을 끼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심방은 소망 을 준다. 기쁨을 준다. 그들이 하 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을 해 방문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 그렇게 열악한 꼴리넷 마을 선교사 가정은 한 마을에서 빛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4) 칭찬

칭찬 샤워!!

행복하려면 칭찬해야 합니다. 칭 찬하면 행복의 기운이 전파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피차의 행복을 빼 앗아 갑니다. 실제로 비난과 비판 의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의 정서를 유통시 킵니다. 가까운 이웃을 칭찬함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이웃 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 해지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 들어 보세요.

아프리카에 바벰바(Babemba) 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벰 바 족은 잠비아 북부의 고지에 사 는 반투(Bantu)어를 사용하는 종 족입니다. 인구는 약 15만인데 루 바 제국의 후예들로서,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 콩고에서 현재 지 역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알려집니 다.

바벰바 족은 화전 경작을 하면 서 약 30호로 구성된 소규모 촌락 을 이루어 생활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화전경작법은 토지 를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4~5년에 한 번씩 새로운 토지로 이 동한다고 알려집니다. 이들은 호전 적이며, 초자연력을 믿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전적으로 알려진 바벰 바족의 따뜻한 문화적 전통이 있어 서 사회 내에서는 범죄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너무 낮아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 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이 부족이 범죄율을 낮추는 비법은 칭 찬 샤워입니다. 부족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 에 데려다 세운 채 마을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광장에 모여들어 죄인을 중심으 로 큰 원을 이루어 둘러섭니다. 그 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큰소리로 한 마디씩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의 내용은 죄를 지



강 태 광목사 월드쉐어 USA

어 가운데 선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입니다.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빠짐없이 말합니다. 과장 이나 농담은 일절 금지됩니다. 진 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칭찬 샤워는 독특한 법정입니 다. 말하자면 판사도 검사도 없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만 수백 명 모인 법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 은 결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좋은 것만 말하게 되어 있 습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 쳐서 칭찬의 말을 바닥이 나도록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 어집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은 죄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 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 겨운 변화의 결심을 하게 만든답니 다. 칭찬 세례의 강력한 효과는 이 마을에 범죄행위가 거의 없어 이 런 행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어린이 인성 개발 프로그램 중에 '칭찬 샤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학급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쪽 지를 나눠주고 학급의 모든 친구들 칭찬거리를 적어서 제출한 다음 선 생님이나 사회자가 친구들의 칭찬 거리를 읽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어휘가 부족하 여 사실만 나열하지만 점점 인성과 인격을 칭찬하게 되어 학급의 아이 들 전체의 인격 성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주의 사항 은 '멋지다!' '잘 생겼다!' 등의 칭 찬보다는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 이 좋았어!' '청소하는 모습이 멋졌 어!' 등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 좋다 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 프로 그램은 칭찬하는 기쁨과 칭찬받는 기쁨의 체험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칭찬하는 것 도 근사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벌칙이 필요한 학생은 학급 전체 아이들 에게 각각 10가지 칭찬을 하게 하 면 아주 긍정적인 벌칙 수행이 됩 니다.

칭찬 샤워 프로그램은 많은 유 익합이 있습니다. 특히 칭찬을 주 고 받으면서 아이들은 공동체에 대 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참가한 모 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 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고 칭찬받 는 법을 깨닫는 효과를 얻습니다. 특별히 존재감이 없어서 주목을 받 지 못하던 아이들이 학급 전체의 아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달 라집니다.

칭찬 샤워는 칭찬을 쏟아부어 주 는 것입니다. 칭찬 샤워를 어른들 의 공동체에서 실험해 보면 어떨 까요? 여러분의 목사님께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오지 선교사님들 에게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수 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칭찬을 쏟 아부어 주세요. 노인대학이나 장년 들의 모임에서 칭찬 샤워를 해 보 세요! 가정에서 칭찬 샤워를 해 보 세요. 생일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칭찬 샤워로 마음이 시원해지기 를 바랍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고문변호사** : 정찬용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킴 지 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 - 0403 / E-mail: chdailyla@gmail.com 주소: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Λ 후워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다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특 혜

학위과정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강의

이벤트 |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2 추수 감사 오픈 하우스

- ■LA 확장강의실 (11월 25일(월) 오후 7시)
-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529-4147
- 플러튼 본교 채플실 (11월 26일(화), 오후 7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북미주 한인교회 성도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라"



제2회 선교박람회 첫째 날 순서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회 KWMO 선교박람회 열려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대표 김 정한 선교사 이하 KWMO)이 주최 한 제2회 선교박람회가 지난달 31 일부터 한 주 동안 세리토스에 소재 한 KWMO 본부에서 열렸다.

선교박람회는 중국, 몽골, 인도, 일본, 이스라엘, 키리키즈스탄, 요 르단, 러시아, 멕시코, 한국, 미국 등 11개국에서 선교사들이 참가 한 가운데 개회예배와 선교포럼, 선교사 간증, 선교 박람회 등 다 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계 선 교 동향과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진단하고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개회예배에서 누가복음 5장 1 절-11절을 본문으로 "결정적 기적" 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정한 선교 사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죽음까 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위태로운 현 장 가운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 다"며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 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드러내 는 발판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하 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한 선교사는 "KWMO 선교 박람회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와 성 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회복하고, 영 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소원한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 확 장을 위해 결단하고, 선교지와 연결 되어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 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의 선교 운 동이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선교학 적 전략을 제시하고 선교사를 파 송해왔다면, 앞으로는 자발적 헌 신을 통한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 적인 선교 참여로 선교 패러다임 이 이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 문인 선교사들을 비롯해 성도 개 개인의 선교적 삶으로 선교 참여 와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 라고 전망했다.



CMF 선교회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따라..."

CMF 선교회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

CMF 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는 지난 2일, CMF 선교 원 회관에서 세계 각국의 선 교사 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를 드

로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 로 기도하고 권혜연 사모의 특 송에 이어 방익수 목사(사랑의 방주교회)가 "그가 거기서 여 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세 기 13:1-4절)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방익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본토와 친 척을 떠나 믿음의 대상인 하 나님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하 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돌 아오게 됐다"며 "하나님의 신 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민 예배는 김철민 장로의 사회 음의 사역자들이 되자"고 강 조했다.

설교에 이어 엄영민 목사와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가 짧은 메시지를 전했으며 채형병 목 사의 인도로 세계 선교와 복음 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노숙자 영적 재활 센터, 아버지 밥상교회 퇴거 위기

11월 13일까지 새로운 장소 찾아야 교계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요청

LA 한인타운의 중심인 웨스턴 과 올림픽에서 노숙자 사역을 활 발하게 펼치고 있는 아버지 밥상 교회(Father's Table Mission 무디 고 목사)가 최근 주인으로부터 퇴 거 명령을 받고 일주일 안에 새로 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 황에 처했다.

퇴거 명령은 밥상교회 뒤편에 자 리한 신축 아파트의 항의가 발단이 됐다.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예 배가 드려지고, 노숙자들이 샤워도 하고 허기도 달래느라 출입이 많아 지자 신축 아파트에서 시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급기야 시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 은 건물주인은 오는 13일 수요일까 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비 우라고 통보했다. 노숙 사역을 하는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 고 목사, 마리아 조 전도사는 지역 교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관심어린 후원을 요청했다.

단체들에게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 어지면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가장 분주한 시기에 받은 퇴거 통보라 더 욱 애가 탄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홈리스들의 예배 장소일 뿐 아니라, 20여 명이 고 목사와 함께 생활하며 재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머물

장소를 찾지 못하면 그동안 재활훈 련을 받던 노숙자들이 다시 길거리 로 나가게 된다.

무디 고 목사는 "제자훈련을 실시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公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변화된 영혼들이 이제 노숙자 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든든한 동역 자가 됐는데, 이런 난관에 직면하게 돼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지역 교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 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고 목사는 "과거 알코올 중독, 마 약 중독자로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 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꿈꾸 고 있는데, 그들의 꿈을 꼭 지켜주고 싶다"라며 "20여 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주택이 절실히 필요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숙자 사역은 하나님께 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 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역으로 새 삶을 찾은 영혼들을 무책임하게 포기할 수가 없다"라며 "너무 갑작 스럽게 받은 통보라 올 겨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다면 새 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버지 밥상교회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CHRISTIAN MUTUAL MED-AID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Phone:773-777-8889 (Headquarters)

Email: ca@cmmlogos.org

714-333-7487(CA 지부)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예언성취와 믿음(1)

요한복음 11:47-53



본문: 요한복음 11:47-53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 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 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 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 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 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 고 모의하니라

역사를 창출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가 계시는데 그 절대자의 계획에 따르는 앞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 이 예언입니다.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우 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속한 '나'라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신 적 작정이라고 하는 역사의 계획 속에 포 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기대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 습니다. 또 그 역사 속에 태어나서 살아온 오늘의 내가 앞으로 겪게 되는 것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계 획하시고 엮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언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 속에 넣는 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 함을 이르는 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봐야겠고 앞으로 어떻게 주 변역사가 엮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살 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 이 믿음을 통 하여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과정에서 영 가 죽었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베다니로 생복락이라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기 _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 도마가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우리도 주 언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절 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 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 아 육하기에 유익하니(벧전3:16)"라고 베드 니냐는 뜻에서 하는 말투였습니다. 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형편을 어떻게 엮어 가실지에 대해 살피고, 그 뜻을 알 아차리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 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소 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던 나 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 니 동네에서 있었던 기적을 두고 대제사 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나누는 말들입니다.

본문 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 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기별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후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방금 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 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불만스레 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 들어 있으니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 다. 잠들어 있으면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나 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

그리고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는 이상한 말 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심 성이 약하셔서 만일 베다니에 계시고 나 사로가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고쳐 살 리실 마음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럴 소 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은 그가 죽음으로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 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겠 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8-9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하신 말씀과 같이 예 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차원이 달랐습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뜻을 조금 알듯 하 면서도 여전히 분명하게 감이 잡히지 않 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을 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라간다면 우리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더

예수님이 며칠이 걸려 베다니로 오셨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역 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가서 원망과 불

평의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 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은 진작에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텐데 왜 이제사 오셨냐는 말입니 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마르다가 바로 알 고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 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 셨지만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믿어 지지 않아"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을 내가 아나이다"했습니다. 구원 얻은 영 혼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할 줄 믿는다 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 활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 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훗날로 포인트를 맞추고 현실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마 르다가 안타까워 요한복음 11:25-26에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 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했습니다. 훗날로 맞추었던 신앙이 바로 현실의 가능성 있 는 부활믿음으로 예수님이 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오 셨다는 믿음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처 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만났지 만 예수님을 만난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 할 수 있다는 부활생기가 믿어지는 믿음 으로 그 심령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 활의 생기를 힘입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산 등성이 집으로 올라가서 마리아에게 "선 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 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언니 마르다와 똑 같은 식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자매의 신앙의 한계는 죽기 전에

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 이지만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신앙 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 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 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들 이 우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 오셨 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 각 속에서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죽음 자체가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라 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 게 사랑하였는가"하고 또 한 사람은 "소 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고 하는 말들 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금 속으로 통 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 은 육신의 죽음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생 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죽을 일만 재촉하 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 곳에 가셔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 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 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 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 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 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 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습니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 시니 삼베로 수족을 동인채로 나사로가 나오니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4시30분/동부오후7시30분				
	토요일 서부오후6시/동부오후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기쁜소리방송	7시30분	2시30분
기독일보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AM1650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증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투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亞是 918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NEW 2020 HYUNDAI ANTRA SE

5 0 Down \$228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18 to Down \$258+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PAUL KIM 213.235.6825 714.331.3855 714.914.8414 213.999.3935 213.276.8959 213.839.3332 949.433.1378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Ø НҮППОНІ Assurance



PHYUNDAI |**-888-644-71**1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u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정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호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 격

-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 4. 자기 소개서
- 5. 최근 설교 CD
-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틀허묵직 아연의 흡수육이 회기적으로 증가)



213.434.1170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시간: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장소: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T:(562)383-3566

북미 루터교회(LCMS) 한인총회 교단 가입 설명회 성료



콘콜디아대학교에서 진행된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 교단 가입 설명회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총회장 문현봉 목사)는 지난 4일 얼바인에 위치한 콘콜디아 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Boriand-Manske Center#221)에서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단 가입 설명회를 개최

날 설명회는 콘코디아대학교 스티 븐 뮐러(Steven Mueller) 학장과 마 이크 깁슨(Mike Gibson) 노회장 참 석해 루터교단에 대해 소개하고 편 목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 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이어, 첫 번 모두 35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이 째 교육은 내년 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얼바인에 있는 콘코 디아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루터란 교회 미조리 시노드에 소속된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 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60여 명의 한인 목회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문의 : 김영규 목사 213-663-3301

새언약아카데미 제8회 자선골프대회 성황



제8회 새언약아카데미 자선골프대회 크리스찬 초·중·고 사립학교인 새언약아카데미(NCA·교장 제이슨 송) 학부모회 는 지난 2일 웨스트릿지 골프클럽에서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NCA 학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선교사와 목회 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를 열고 있는 NCA 학부모회는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를 홍보하고 학 부모와 가족들을 초청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크리스마티 파티에서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는 자원봉사자

"위탁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 전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 가 11월 한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 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 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 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 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7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 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 로 진행된다.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 으로 만나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셜 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 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크리스마스 위시 리스트'에는 장난감이나 학용품, 축 구공, 스쿠터, 아마존 이나 타켓 상 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디즈니랜드 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고 말해 주는 아이도 있었으며, 근사한 식당 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가족 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한인사회 후원으로 위탁가정 아 이들이 막연히 품고 있던 꿈들이 현 실이 되기도 했다. 야구 선수가 되 고 싶어서 다저스 경기를 꼭 보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고 싶다고 한 아이도 있었다. 이 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들의 꿈을 후원하고 싶다는 후원자들이 등장, 자신의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경우도 있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연말을 앞두 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을 생

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전해주셔 서 지난 4년간 위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많은 한인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 지 않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 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로 후원할 수 있다. 문의는 김지 나 소셜워커 jinakim@kfamla. org, 213-235-4867로 하면 된

후원방법:

[개인수표] Pay to: KFAM, 받는사람 및 주소: AFFI Xmas.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신용카드] 웹사이트 결재

www.KFAMLA.org

써니김 담임목사

장태원 담임목사

엘리야 김 담임목사

박헌성 담임목사

정인호 담임목사

"아름다운 크리스천 가정 세워 건강한 교회 이뤄요"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개최



오른쪽부터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진행한 이병만 장로, 이 상명 총장, 신승훈 목사, 신분희 사모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된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제1회 DLMC(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 간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호프 센터에서 개최됐다.

DLMC 세미나는 지난 9월, 주님의 영광 교회에서 발족한 글로리 싱글즈 커뮤니티 (Glory Singles Community)의 공동대표인 신승훈 목사와 이병만 장로가 기획하고 주 관한 행사로, 결혼을 앞둔 크리스천 청년 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통 해 아름다운 가정의 건축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병만 장로는 "우리 사회에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고자 하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크리스천 미혼자들이 우리 주 변에 너무 많아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했 다"며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주고 서로 건전한 만 남을 가질 수 있도록 DLMC를 발족하게 됐 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50여 명의 크리스 천 청춘 남녀들은 두 번의 세미나 후 다양 한 게임과 식사 시간, 여러 가지 주제로 토 론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성품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강사로 나선 신승훈 목사는 "성 경적 결혼관과 좋은 배우자 되기"라는 주 제로, 둘째 날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 상명 총장이 "성경적 가정 규범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 하며 △왜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부부 사이에 가 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진 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날 마지막 시간, 참석자들은 비공 개로 마음에 맞는 커플을 정해 4명의 커플 이 탄생했고, 추후 이메일 교환을 통해 만 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DMLC 운영위는 "앞으로도 크리스천 남 녀들의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할 계획"이 라며 "미주지역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 는 이 사역에 한인 교계와 사회의 적극적 인 협조와 후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DMLC 제2회 DLMC 세미나는 오 는 12월 28(토)부터 29일(주일)까지, 오후 4시부터 주님의 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제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 열려



이인미 작사, 지성심 작곡 '왕의 길을 예비하라'를 부르는 베델교회 성가대

남가주 한인교회음악협회(전현미 회 장)가 주최한 제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이 지난달 27일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성가의 밤에는 글로리앤피스 합 창단(Glory & Peace Choir), 코랄리움 선교 합창단(Choraleum Mission Choir) 그랜드페스티벌 합창단(Grand Festival Choir), CTS 콘서트 합창단, 베델교회 성

가대, 캄 합창단(Kam Chorale), 독창 허 훈 등 8개 팀이 참가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했다.

전현미 회장은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 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 을 따라 기독 시인들의 창작시와 작곡가, 합창단의 협력으로 이뤄져 더욱 뜻 깊은 시간"이라고 소개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 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식 담임목사

최순환 담임목사

강진웅 담임목사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송 교호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2구에내 고전 5.45(전세대에대 고전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랑의

Rain down 주일예배 우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믿음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유초등부 오전11:00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6:00(토)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정세훈** 담임목사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EM 영어예배 오전 10:00 **곽건섭** 담임목사 오전 8:30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사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오저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김종호 담임목사 오전 11:00 2부예배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선교교호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오후 1:00

Ò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 예배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호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선교교호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어린이예배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새벽예배 (토) 오전 6:00

Youth예배 오전 11:00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세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정병노** 담임목사

오전 6:00 (화~토

교 호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금요예배 오후 8:00 **박은종** 담임목사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하이교호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본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00 중1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글 S차양에배 (보다) 저년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예배)(소예배실) 오전 11:00

T.(213)387-1700 C.(213)500-4737/olympic-church.org 오후 7:30 **김 신**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기 호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 유녀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화교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호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김은목 담임목사

E-mail : chdailyla@gmail.com



이순환 담임목사 새변기도회 오전 6:00 (화~투) 샘교호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경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기호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곽부환 담임목사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T. (323) 702-6709

신용환 담임목사

LA동부,라스베가스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성교호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소망교호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우영화 목사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이래드교호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싱도교호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모전 11:00 (본성전) 매일이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프링스한인감리교호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이희철 담임목사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성한미교호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 T. (626) 444-0058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오전 8:00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오전 5:30(월~금), 6:30(토) ㅁㅡᆫᆼ .. 새벽기도회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오전 6:30(투) 수요기도 오후 7:30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 周二 晚上 七点半。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화) **송재호** 담임목사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렠루야하이교호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FM예배 우호 12:30

유년부

2부 오전 10:30

오전 10:30

Ò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3부 오전 11: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배우근 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시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하이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F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MP채플 최 혁 담임목사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예배 오후 1:00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아어 개 호 www.ln-ChristCC.org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랑의빛선교교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하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개호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오전 5:30(월-금) 6:00(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선교교호 불러서(Calling), 고치고(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美 백인 복음주의자 대다수 "트럼프 여전히 지지"

공공종교연구학회. 미국인가치조사 보고서 발표

Why Donald Trump Supports Public Prayer More Than Any Other President in Recent History

PM EDT 5/10/2019 STEPHEN STRANG

기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카리스마뉴스 캡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과 상관없이 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 비영리 연구단 체 '공공종교연구학회'(the 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 PRRI)는 최근 10번째 '미국인 가치조사'(American Values Survey)를 실시했다.

PRRI는 이 조사 보고서를 매년 실시해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1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진보성향의 브루킹스연구소 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구는 2,527명의 미국인들을 대상 으로 8월 말과 10월 중순 등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조사 샘플에는 343명의 백 인 개신교 응답자들도 포함돼 있었다.

응답자들에게 지난 9월 24일 처음 하원 에 의해 발의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관 해서도 물었다. 당시 미 하원은 트럼프 대 통령이 그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국 지도자를 압박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절차에 들어갔다.

PRRI 이사장이자 메릴랜드 워싱턴대학 교 멜리사 데크만(Melisa Deckman) 교수 는 "이 자료는 복음주의자들의 트럼프 대 통령 지지가 매우 단단할 뿐 아니라 오히 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연구의 분석에서 가장 눈 에 띄는 요소는 공화당원의 94%가 '우리 당은 미국인들의 삶의 양식을 외부의 영향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 점이었다. 복음주의자들은 계속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

경우, 86%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역할 을 잘 수행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무종교인의 경우, 81%가 트럼프가 대 통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인정하 지 않는다고 답했다.

워싱턴포스트 제니퍼 루빈(Jennifer Rubin) 칼럼니스트는 "백인 복음주의자 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의 문 화적, 인종적, 종교적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는 사실을 발견했다. 종교적 윤리를 따지 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 때문에 그를 덜 지지하게 되었다고 답한 반면, 백인 복음 주의자들은 예외였다.

백인 복음주의자 응답자의 36%는 트럼 프 대통령의 행동 때문에 그를 덜 지지하 게 되었다고 응답했지만, 백인 복음주의자 응답자의 47%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인 행동이 그에 대한 지지에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백인 복음주의 응 답자 중 16%가 트럼프의 행동으로 그를 더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체 응답자의 62%는 트럼프의 개인적 행동 때문에 그를 덜 지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30%는 대통령의 행동이 어떤 차이도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오 직 8%만이 트럼프의 행동으로 더 그를 지 지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공화당원 응답자의 55%는 트럼프의 행 동이 지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답했고 20%는 트럼프의 행동으로 더 욱 그를 지지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공화 당원의 25%는 트럼프의 개인 행동으로 그 를 덜 지지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백인 개신교인(423명)의 경우, 응답자의 한다. 그들은 트럼프를 자신들의 챔피언으 54%가 트럼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그를



도널드 트럼프의 복음주의 지지자들이 플로리다 집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역대 공화당 출 신의 대통령들이 수행하지 않았던 많은 정 책들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9%는 '트 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 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백인 복 음주의자들의 경우 응답자의 77%가 그렇 다고 답했다. '강력하게 인정한다'고 응답 한 백인 복음주의자들도 50%에 달했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53%는 트럼프 대 통령을 '강력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류 개인교인의 54% 는 트럼트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 행하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답했으며, 백인 주류 개신교인 응답자의 27%만이 강력하 게 인정한다고 답했다. 백인 가톨릭의 경 우, 응답자의 의견이 갈렸다. 50%는 트럼 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다 고 강력히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고, 48% 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반면, 소수 인종 기독교인들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히스패닉 가톨릭인의 경우, 트럼트가 대통 령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인정한다 는 응답자는 28%, 인정하지 않는다는 응답 자는 72%였다. 흑인 개신교인(208명)들의

덜 지지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36%는 별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흑인 개신교인과 히스패닉 개신교인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80%와 63%가 트럼 프의 개인적인 행동으로 그를 덜 지지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 외 다른 종교인 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인 복음주의자의 경우, 응답자의 63%가 트럼 프가 대통령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 았다고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가 대통 령으로서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공화당원의 경우, 응답자의 76% 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존엄성을 훼손 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민주당원의 경우는 92%가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보았다.

또 다른 종교 단체들보다 훨씬 많은 86% 의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미국 우선주의'는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용어라 고 답했고, 백인 가톨릭 신자의 77%, 백인 주류 개신교인 76%, 흑인 개신교인 69%, '다른 기독교인' 65%가 동일하게 답했다.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라 는 용어를 선택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 중 65%였다. 강혜진 기자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中 강제북송 '박해 우려 지역으로 송환 금지' 위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UN Web TV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 은 박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의 송환 금 지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인 이른 바 '농 르 풀망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 고관은 이날 미국 뉴역 유엔본부에서 기 자회견을 열고 "어떤 이유에서든 본국으 로 송환됐을 때, 고문과 학대에 직면하게 된다면, 현장 난민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서 이같이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의 인권 논의는 북한 체제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권익을 높이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라 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 "한국에 거주하는 탈 북민 가족들로부터 지난 6개월 간 중국이 탈북자를 구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 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강제북송해서 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임기 3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의 인권상황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 았다고도 지적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

퀸타나 보고관에 따르면, 이같이 북한 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식 량난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북한 인구의 약 40%인 1100만 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4 만 명의 아동이 영양부족 상태이고, 특히 3만 명은 사망 위험에 놓여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공공 배급시스템에 차별이 만연 해있으며, 일반 주민이나 특히 시골 농민 들은 어떤 배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 농민들이 개인 경작지에서 혜택을 얻지 못하면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 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시장의 활동을 규 제하지 못해 '부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 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0)·세계식 량계획(WEP)은 5월 보고서에서 북한 주 민의 40% 이상이 식량 위기에 처해있다 고 밝힌 바 있다.

강혜진 기자

中 이른비언약교회 교인 구금 7개월 만에 석방



교회 몇몇의 성도들과 리더들이 수감된 후에도 기도회에 참석한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 ⓒ한 국 순교자의 소리 제공

컴퓨터와 휴대폰 비밀제공 거부로 감금돼

중국의 이른비언약교회 교인 구중칸 (Gou Zhongcan) 씨가 당국에 체포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영국 크리스천투 데이가 국제기독연대(ICC)를 인용해 25 일 보도했다.

ICC는 현재 구 씨는 투옥생활 중 시력 에 문제가 생겨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 다.

박해감시단체 차이나에이드 중국 (China Aid)에 따르면 구 씨는 컴퓨터와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라는 당국의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공안국 지하실에 감금됐었다.

구 씨의 변호사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 기 위해 노력했으나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구 씨의 아버지가 가까스 로 그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인터뷰에서 "아들 의 건강이 몰라보게 나빠져 있었지만, 아 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 었다"고 전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한 교인은 최근 ICC 와의 인터뷰에서 "구 씨는 시력이 나빠졌 으나 건강은 좋은 상태에 있다"고 말했 다.

구 씨의 수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대에 기자로 활동하던 그는 중국 내 죄 수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해외 인 권단체에 제보한 혐의로 10년 넘게 수감 된 바 있다.

ICC 동남아시아 지역 담당자인 지나 고 (Gina Goh) 씨는 성명을 통해 "구 씨가 마 침내 석방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다"면

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기독교인들에 대 한 박해의 수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 다"고 밝혔다.

중국 지하교회가 비밀스럽게 모임을 가지는 것과 달리, 이른비언약교회는 신 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다.

BBC는 "이 교회의 공식예배는 중국 공 산당의 분노를 샀다"고 전했다.

차이나에이드에 따르면, 작년 최소 150 명의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이 경찰에 구금됐었다.

2018년 10월 9일 중국 당국은 담임목 사인 왕이(Wang Yi) 목사와 지앙 롱(Jiang Rong) 사모를 체포했다. 다음날에는 약 100명의 교인들이 구금됐다가 곧 풀 려났다.

당국은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른비언약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 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뒤, 당국은 다시 모임을 가지려 했다는 이유로 약 60명의 교인들을 체포 됐다.

UN 인권위원회가 지난 10월 1일 발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3명의 교인들이 구금돼 있으며, 이 가운데 왕이 목사와 지앙 롱 사모도 포함된 것으로 알 려졋다.

이 가운데 12명은 행정구류 중이며, 11 명은 구금 기간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ICC의 고씨는 "왕이 목사와 진더부(Qin Derfu)는 조작된 혐의로 여전히 구금 중 이며, 변호사와 가족들은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볼 수 없다"면서 " 그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를 계 속 압박해야 한다. 애초에 그들 중 누구도 수감될 만한 혐의가 없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선교교호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후 1:30

T. (310)951-3153

EM성인예배 오후 1:00

1부예배 오저 8:00

FM에배 오전 10:45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후 2:00

주일1부예배 주일2부예배 EM 예배 주일3부예배 KM청년예배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F. (310) 530-8400/cornerstonetv.co

오전 8:00 본당 오전 9:45 본당 오전 9:45 본당 오전 11:30 본당 오존 2:00 본당 오후 8:00 본당 오후 8:00 본당 오후 5:30 본당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학교 오전 11:00

운교회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오후 1:30

샬롬교호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김준식 담임목사

서보천 담임목사

김경환 닦임목사

박성규 담임목사

이종용 담임목사

김우준 담임목사

이명이 담임목사

구봉주 담임목사

백정우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 오전 8:00 FM예배 1부예배 오전 8:00 **이석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EM) 오전 9:45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하어청년부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2부예배(EM) 오후 11:00

이호우 담임목사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종/고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웤-토)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1부예배 오전 9:3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

T.(562) 453-5644

오전 11:00 오후 2:00 이상훈 담임목사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수비져교호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주일1부 오저 9:00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고창현 담임목사

윤 목 담임목사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소망교호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김철민 장로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교 호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금요찬양 오후 7:30

오전 11:00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 /outh/College 오전 11:00

주으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E-mail: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선교호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

주잌예배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부예배 오전11:0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기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u>スムリゥ</u>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주 벧엘 교호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수순-

우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부품교호

민승기 담임목사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이 일 담임목사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경통독모임

유초등부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하이교호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수요예배 오후 7:30

청년예배 오후 1:30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거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안상희 담임목사

정기정 담임목사

김인철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 6:00am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즈의에베 오저 11·30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델교호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4부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기호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일권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

주일예배 오전 11:30 **람학춘**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차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일본어 예배 오후 1:30

주의하고 오저 9:15 오저 11: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이 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주고등부 예배 오저 11:00 수비전교호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아,유아,주일학교 Youth 청년 오후 12:30 샘물교호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박신웅**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인온누리교호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성인영어예배오전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우대권 담임목사 초등부목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토요예배 오후 8:30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714) 833-2568 daekwon.org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운티한인교호

(매월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2:0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20 투유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하이고호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흐 7:30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새벽기도 오저 5:30/하-근

장이교호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오전 6:00(토)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o Π 記호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CA92886

Pastors David Lee &

신원규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박 훈 담임목사

EM CHURCH

2부 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0:00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PASTOR JUSTIN KIN

임경남 담임목사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Pastor Harold Ki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JOSEPH SUK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PASTOR RONNIE PARK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Inland Church



Pastor Daevid Yoon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美 복음주의 지도자 87% "비핵화 조약 더욱 강화해야"



NAE 지도자들. ⓒ미국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제공

NAE 조사결과 발표

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87%가 비핵화 조약의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미복음주의연맹(NAE)이 6일 전했다.

이는 NAE가 지난 9월 실시한 조사에 따 른 것이다. 또 응답자의 13%는 "조약을 그 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핵화 조 약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아 무도 없었다.

전미복음주의연맹 리스 앤더슨(Leith Anderson) 회장은 "복음주의자들은 성경 을 믿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평화를 추구 할 것을 요구한다.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 고, 핵무기 감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 경의 평화 우선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북미개혁교회(Reformed Church of North America) 콜린 왓슨(Colin Watson) 행정국장은 "이 조약을 강화하면 핵무기

의 확산이 줄어들고, 의도적인 폭발이나 우발적인 폭발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 로 믿는다"면서 "이같은 입장은 인간 생명 의 신성함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지도자들은 도덕적 권위와 경제적·군사적 압박이 뒷받침 될 때, 이 조약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1년 전미북음주의연맹 이사회 는 핵무기로 야기된 성경적, 목회적, 정책 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핵무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핵무기는 그 특유의 파괴 력을 가지고, 미래 세대와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들의 삶과 번영을 심각하게 위협한 다"고 명시하고 "핵무기는 인간의 교만을 조장하며, 타락한 인간의 정부가 하나님의 뜻을 넘어 휘두르려는 과도한 힘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일보

북한 정권, 표현과 신앙의 자유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는 북한 주민들. ⓒ지저스 아미 2014년 2월호

영국 외무부 30개 인권 우선대상국 인권 상황 발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북한의 인권 상 황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고 미 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 타리크 아흐 마드(Tariq Ahmad) 부장관은 22일 30개 인권 우선대상국(Human Right Priority Countries)의 올 상반기 인권 상황에 관 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 한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했고, 국제 기독교 탄압 감 시단체인 오픈도어즈로부터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가로 지목됐으며, 세계노 예지수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고 VOA는 보도했다.

또 "북한 정권이 계속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 에서는 국영 매체가 유일하게 허용된 정

보의 원천"이라고 덧붙였다.

아흐마드 부장관은 북한에서 일부 분 야, 특히 장애인들의 권리와 소녀들의 교 육에서 약간의 진전의 징후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수감자들과 여성, 소녀 등 취 약게층에 대한 처우를 둘러싼 심각한 우 려는 여전하다고 강조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흐마드 부장관은 지난 2월 열린 제 4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

당시 그는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끝내 기 위해 북한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초 '2018 인 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 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대상국 중 하나로 지목한 바 있다.

또 지난해 외교 활동에도 불구, 북한의 인권 상황에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었다.

강혜진 기자

美 펜스 부통령 "자유 향한 홍콩 시위 전적 지지"



크 펜스 부통 령이 홍콩 민 주화 시위를 지지했다. 24일 로이

미국 마이

터 등 외신 은 마이크 펜 스 부통령이 싱크탱크 '우 드로윌슨센

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입 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 설에서 "홍콩은 중국이 자유를 받아들 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라면서 "중국은 홍콩에 개 입하며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통해 보 장받은 홍콩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축 소하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 했다.

홍콩 시위대를 향해서는 "자유를 향한 홍콩 시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당신들에 의해 고무됐다. 수 백만 미국인 이 존경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서 ' 홍콩 시민들이 비폭력 시위를 계속해 나 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은 중국과 대립을 원하 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말도 남겼다.

강혜진 기자

하

여의도순복음교회 "문재인 대통령 하야 동참 50만 서명지 안 보내"



여의도순복음교회,

"50만 서명지 보내왔다" 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당회 및 성도 일동 해명서 발표하고 부인 나서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최근 전광훈 목사가 문재 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순복 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명 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 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당회 및 성도 일동의 '해명서'에 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소속 교단 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 도순복음총회)에서 진행하는 동성 결혼 반대운동에 동참해 서명운동 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약 50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광훈 목사는 이 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재인 대통 령 하야 서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우리는 지 난 61년 동안 나라가 위기에 처했 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 심을 간구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선교)와 교 육 봉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 에 전념해 왔다"며 "전통 복음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 을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데 최 선을 다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정치적 목적 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주 장을 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감당을 혼돈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곡 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 치적 중립을 지키며, 이념 대립으 로 나뉘어진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 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과 한 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0월 3 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성도 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이대웅 기자

심하보 목사 "목사님들, 함께 나와 나라 위해 일하자"



눈물을 머금은 채 광화문 국민대회 연단에 선 심하보 목사. ⓒ유튜브 캡처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는 메 시지로 화제를 모은 심하보 목 사(은평제일교회)가, 지난 10월 25일에 이어 11월 2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도 20여분간 격정 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심 목사는 "교회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체제여야 우리가 신앙 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 기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흔 들리고 옆으로 이탈했다"며 "그 래서 지난 한 주간이 38년 목회 중 가장 힘들었다. 젊었을 때 사 업에 실패해서 젖먹이 둘과 갈 데가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 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철야 광화문 집회 나 와서 그 짧은 설교를 (유튜브에 서) 120만명이 보시고, '힘내세 요, 나 교회 갈께요' 하면서 지원 해 주신 분들 덕분에 죽지 않고 여기 나왔다"며 "혹시 아직 교 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기 있는 가. 기독교가 나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나. 가까운 교 회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 그래 야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 다"고 말했다.

심하보 목사는 "저희 예배당 을 지을 때, 외부 주민들이 반대 하고 욕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내 부에서 저를 공격할 때 정말 죽 고 싶더라"며 "전광훈 목사님도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나. 좌파 나 정부가 방해하는 것은 얼마 든지 견딜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받는 공격은 힘드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목사는 "1974년 여의도에 서 빌리 그래함 목사 전도집회

때, 모인 사람들을 보고 뭐하는 지 와 봤다가 결신했던 사람이 무려 2만명이었다고 한다"며 " 이 광화문 집회에도 불신자들 이 왔다가 예수 영접하는 사람 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 사돈도 예수 안 믿었는데, 광화 문 집회 나왔다가 '나도 교회 갈 래요' 하시더라"고 전했다.

그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 마나 힘든가? 그러니 우리 기독 교 어르신들, 내부에서 공격하지 마시라. 공격해서 당신들에게 유 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라며 "몇 몇이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반대 성명 내시는데, 전도 몇 명이나 해 보셨는가. 원로랍시고 주의 일을 그렇게 방해하면 어떻게 교회가 살겠는가"라고 했다.

이후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하 기도 했다. 그는 "우리 어르신들 좀 참아달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달라"며 "(전광훈 목사님) 몸도 성치 않은데, 불쌍하지도 않은가. 나라 살리겠다는데…,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엎드려 빌겠다. 한 번 나와 보고 말씀하 시라"고 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가 방송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조 사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여론 조사,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 라며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60 이 넘었다고 하니 끊더라. 차별 을 금지하겠다더니, 나이를 차 별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교회 얼마 나 해 봤는가? 전도 얼마나 해 봤 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데"라며 "더 이상 내부에서 총질 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日 하토야마 전 총리 "사과란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만 하라' 할 때까지"

'기독교인' 아내와 한일 화해 위한 예배 드려

"사과란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 만 하라'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 던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2009.9~2010.6)가 남긴 말이다. 그 가 지난달 27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를 찾아 '한일관계 회 복을 위한 예배'를 함께 드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제1회 3.1운 동 UN/유네스코 평화대상' 국제부 문 수상자로 선정돼 방한했고, 26일 국회서 열린 시상식 후 이날 아내 와 함께 교회를 찾았다. 그의 아내 는 기독교인이며, 그녀의 할아버지 는 목사였다고 한다.

이날 설교 전 하토야마 전 총리를 소개한 소강석 목사는 "동북아 평화 를 위해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론 을 구상해 오신 분"이라며 "제국주 의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이 자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이어 소 목사의 설교가 끝난 뒤 단에 오른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무엇 보다 최근 어려워진 한일 관계에 대



하토야마 전 총리(왼쪽 여섯 번째) 등이 손을 잡은 가운데 소강석 목사가 기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 지금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일 본이 식민지 통치를 통해 한국인들 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 관계에 우애 가 필요하다"며 "많은 이들이 국가 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 람이 목적이고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가 목적이 되 고 사람이 수단이 될 때 국가주의 적이고 자국중심주의가 나타난다" 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고 한국은 일본을 용서해 서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나 지 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모두 길 위에 서 쓰러질 수 있다. 이번 예배를 계 기로 한반도와 현해탄 사이에 평 화의 다리가 놓였으면 한다"고 전

이후 소 목사와 하토야마 전 총 리를 비롯해 그와 함께 교회를 방 문한 김영진 장로(한일기독의원연 맹), 황우여 전 국회의원 등이 손을 잡고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 TRACS 정회원 인준 ■ FRALO S 의료 인단 =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M MIDWESTERN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 EDU WWW GGBTS EDU / KEB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Tel: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시입생 | 편입생모집

좐(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삼(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B.A) | 126학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불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강의 장소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차수업 일 월 일 금 시간 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일 월 일 금 년 월 시간 일 금 차수업 년 월 일 월 시간 일 금 차수업 년 일 월 시간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학위수여식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국을 관통하는 신앙의 강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고도의 첨단문명으로 변하 는 시대가 되면, 계몽된 사람들이 점차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 러나 20세기 후반부를 지나는 기술 문명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종교적 영향력이 퇴조되어질 것 같지는 않 습니다.

하이테크(high-tech) 시대는 오 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교제 를 중시하는 하이터취(high-touch) 의 시대를 요청하게 되기 때문입니 다. 포스트모던시대가 되면서 종교 는 오히려 영적 친밀감과 영성에 대 한 요청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시대 적 특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세계뿐만 아니라, 중동의 무슬림 나라들과 인도의 강력한 힌두교 정권은 신정정치(theocracy)의 이상 속에서 종교를 재 부상(resurgence)시키고 있습니다. 종교가 종속변수가 되리라고 보았 던 전문가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하면서, 금세기에 들어 각종의 세계 종교들은 밀접한 정치-종교 관계를 중심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며 국 가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는 중국과 중동에서 기 독교 선교사를 추방하는 결과를 낳 고 있습니다. 문명충돌의 기저에는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각종 종교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환경 가운데서 위대한 청교도의 전통가운데 세워진미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정치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놀랄 정도로 자유스런 나라입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만끽하는나라는미국입니다. 더욱이미국이가진 신앙의 자유, 즉종교와 교파를 자유로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나라로서의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에 이르 기까지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청교 도들에게 중요했던 과제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미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뉴요크, 뉴헤이븐, 뉴햄프셔, 뉴잉글런드, 뉴올리안즈, 뉴브렁스윅 등 셀 수 없이 많은 영국과 유럽의 도시에 새롭다는 의미를 부쳐서 쓴 지명이 존재합니다.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 국가와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삶을 개척하여 나가려는 가나안 복지의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독립의 선포와 7년 동안 영국과의 전쟁 이후에 미국이 헌법적 가지로 확립한 것은 국교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500동안 숭유배불정책으로 유교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존재한 것을 압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움으로 종교적 관용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많은 비서구 나라들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미국을 관통하여 흐르는 자유로운 시내입니다. 이 생명강가에서 자유로운 교회와 다양한 교파의 활동 및 교육기관과 봉사단체가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합니다. 이 전례 없는 자유의 생명강을 주의 나라 백성을 일으키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식탁!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 역할 때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오리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 덕 (?)에 한 6개월 동안 심방을 가거나 교인들이 식사대접을 하면 거의 오리고기 집으로 가기가 태반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리고 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이 아닙니다(물론 싫어하시 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때 당시 새로 등록한 교인 이 오리 집을 하는데, 장사 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집, 장 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으로 말씀 하셨던 것이 와전 된 것입니다. 저희 6개월간 거의 오리집만 다녔는데, 이 제 오리집 그만 다녔으면 좋 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고픈 마음이야 누구 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 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 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목사 때 심 방을 가는데, 구역장이 "목 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 "뭐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면 목회할 동안 그것만 먹어야 해!"라고 들으신 것이 있어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대답하셨답니다.

그리고 첫 심방에서 한 가정에서 아주 다양하게 잘 차려진 식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그 다음에 계속 되었습니다. 분명 본인께서는 무엇이 맛있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구역에서도, 그리고 그다음 구역에서도 식사 때가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 하는 것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올까?' 생각이 들었는데,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이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얼마지 않아 알게 되었습 니다.

처음 식사대접을 했던 가 정에서, 구역장이 식사 도중 에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에 가장 많이 가는가?' 생각 하며 목사님의 젓가락을 보 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 다음 구역에도,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구역 에도 전한 것이지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 다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식탁에, 내가 대접하고픈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표현으로 '차려주는 대로 드세요!'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 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하나님 보 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 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과 '하나님 보시기 에 좋은 삶'의 끊임없는 갈 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 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 하시는 것으로 대접해 드리 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 다.

상식있는 크리스천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죄 사함을 얻는 죽음과 피의이야기가 있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은사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기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거나 병고침이일어나는일이 너무 흔해서 기적이 상식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 자들의 신앙은 사실상 초자연적인 범주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며 신 뢰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도 않은 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전 혀 반대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주실 것을 믿고 기 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일 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 무엇인 것은 사실이지만, 신앙이 상식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믿는 자들은 부활을 믿습 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음을 두 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이 끝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분명히 있습

그런데, 그렇다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 게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 피 천국 갈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 겠어요? 빨리 장의사에게 전화해서 예약이나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의 고 통 그리고 죽음과 맞닥뜨린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 런 사람의 가족들도 이별할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상식을 벗어난 신앙의 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 예의와 도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 중에 피아노 레슨을 하시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피아노 레슨 비를 한 달, 혹은 두어 달 밀려 내시 거나, 약속한 레슨 시간을 지나치게 자주 어기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핑계가 늘 교회와 선교에 관한 핑계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선교헌금을 해야 해서 다음 달에 레슨비 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 선생님, 제가 교회모임이 있어서 아이 레슨시간을 바꿔야겠어요 죄송해요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크리스천 이었기에 망정이지 불신자였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그러 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반듯한 크 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토 10시 ~ 2시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기념 특가세일 햄프한구입시 응을 소금 or 함조 1병 선물 1,800 환 \$250 +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혈관 청소! 치매 예방

면역력 증강!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大麻神草丸 햄프함조환

2 TIMES A DAY {15-20 PILLS}
TOTAL {1800 PILLS}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 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유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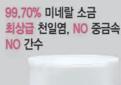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청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를 Na Cl 바토를 (Na)
같은 Ca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류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515g \$30...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밀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50g \$30+Tax



Westmoreland
Milshire Blvd

d

E.UM Cafe (이음카페) 전시판매장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213)386-3896, (213)605-2772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RYSUPPLEMENT

BAJA UNESCO WORLD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ミナルカナナカラ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ᅋ프플레솔

알츠하이머 병은

아멜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3)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 학원대학교 부총장)

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변화를 가져왔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참된 지식의 근거만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성경

은 지혜의 보고라거나, 구원의 복음

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츠빙글

리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이 제시하는 사회의 건설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도 엄청난

츠빙글리의 성경적 확신은 하나

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적용을 위해

서 교회가 시정부당국과 일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간여했다는

점이다. 츠빙글리의 선도적인 역할

로 인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진영에 가담한 목회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비판하

고, 시대적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

스위스 지방의 정치적인 문제는 곧

바로 교회의 독립권과 자치권을 확

립하는데 깊이 연계되어져 있었다.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는 언

풀이했다.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츠빙글 리의 성경 의 적용과 성취들

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확신 을 가졌는데,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창조하 고 보전하기 때문이다. 츠빙글리는 우리는 츠빙글리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 가 교회의 성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확신했다. 전통보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주 는 성경의 적인 교회가 형성된다. 1530년에 권위에 대 저술했으나, 츠빙글리가 서거한 후 해서 확고 1536년에 출판된 『믿음의 해설』 한 판단을 갖고서 철저하게 노력했 에 보면, 프랑스 국왕 프랑소와 1세 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 그 에게 보내는 헌정문이 담겨있는데, 가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16세기 종 여기에서 교회의 개혁을 강력하게 교개혁의 시대에 얼마나 큰 공헌을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

츠빙글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 경을 해석했고, 개신교회의 확립을 위해서 취리히 교회의 설교자로서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지 도력은 박해를 받았던 종교개혁자 들의 상황타개를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서 중요한 발언과 저술 을 발표하면서 발휘되었다. 1525년 이후로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츠빙 글리의 새로운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적인 임재에 관한 이 해의 골이 깊어졌다. 그럼에도 츠 빙글리는 1529년에 마틴 부써의 주 선으로 회집된 말부르크 개신교 지 도자 모임에서 츠빙글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독 일에서 온 루터를 비롯한 다른 종 교개혁자들과 서로 중요한 교리적 기초를 확립했다. "말부르크 종교 화의" (the Colloquy of Marburg) 에서 츠빙글리는 루터파 지도자들 과 함께 개신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세웠다.

제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유지 유럽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막 되어 왔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위상에 따라서 세속 통치자들의 맞 강한 권세를 가진 황제와의 사이 대응이 혼란을 가져왔었다. 에 정치적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1530년에 합스부르크 황제 챨스 5 성경의 권위를 가장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많은 구절들에 대한 정 세가 개최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확한 의미파악과 해석들은 결코 쉬 회의" (the Diet of Augsburg)는 유 운 일이 아니다. 츠빙글리의 성경 럽의 정치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 해석과 개혁적인 신학사상은 지속 던 독일지역 개신교의 문제를 주로 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무엇보다 다뤘다. 황제는 독일 개신교회들에 도 16세기 신학의 핵심쟁점이었던 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 성만찬 해석에서 츠빙글리의 상징 청했다. 멜랑히톤은 6월 25일, 루터 파의 입장을 요약해서 "아우구스부 설은 가장 두드러진 가르침으로 남았다. 1525년 이후로 츠빙글리 르크 신앙고백서"를 제출했다. 츠 는 루터에게 몇 차례 의견을 표시 빙글리는 7월 11일에 자신의 개신 하였고, 여러 편의 글과 저술을 발 교 입장을 담아서 『믿음의 이해』 표하였다. 츠빙글리는 성만찬이라 (Fidei Ratio)를 제출했다. 독일 남 는 것은 자신을 주님의 군사로 다 부 지방에서는 부써와 볼프강 카피 짐하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고린 토가 쓴 신앙고백서를 제출했다. 그 도전서 10장 3절에 대한 해석에서 러나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던 황제 도 츠빙글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리 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고 1531 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상징 년 4월 15일까지 모두 다 로마 가톨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릭 신앙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 군주

들은 스말칼트 동맹을 맺었고, 아우 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채택하 였다. 부써의 스트라스부르크도 이 동맹에 참여했으나, 츠빙글리와 스 위스 개혁교회들은 가담하지 않았 다. 츠빙글리는 부써가 너무나 루터 파 신앙고백과 같은 입장이라고 불 신하게 되었다.

스위스 지역 개혁자들은 츠빙글 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아우 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1531년 10월 11일, 스 위스 가톨릭 진영에 속한 군대가 두 번째 카펠전투에서 개신교 진 영의 군대를 제압하였고, 츠빙글 리는 사망했다. 그리고 11월 24일 외콜람파디우스가 흑사병으로 사 망했다.

츠빙글리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스위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입장을 계승 한 "제1 헬베틱 고백서"가 불링거

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소 급진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아마도 그가 이러한 변화된 견해를 갖게 된 것은 네델란드 법학자이자 인 문주의 해석자였던 코넬리우스 호 엔(Cornelius Henrici Hoen)의 편 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같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이면서 도 루터와는 달리 칼 쉬타트가 성 만찬에서는 아무런 실제적 임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츠빙글리는 1524 년 11월에, "성만찬에 관하여 매 튜 알베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 니라 생명의 양식을 언급한 것인데, 영적인 양식임을 가장 중요한 출발 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츠빙글리는 지적했다. "이것은 내 몸이다"(마 26:26)는 구절에 대해서 츠빙글리

월에 거의 동시적으로 출판되었다. 츠빙글리의 『친절한 주해, 즉 마틴 루터의 성만찬 해석에 대한 고찰』 은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부분 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츠빙글리는 루터의 주장들을 요약해서 설명했 고,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관련 된 것들을 다시 제시하였다. 그는 요한복음 6장을 가장 중요한 해석 적 기반으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설 명해 온 입장을 요약하였다. 츠빙글 리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적인 몸을 실제로 가졌으며, 적나라 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서 지내는 동안에, 유한한 신체로서 활동하다 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따라서 그의 몸과 피는 만물 가운 데 편재할 수 없으며, 성만찬의 빵 과 포도주 안에 임재 할 수도 없다 는 것이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 게 주장한 종교개혁자가 츠빙글리



츠빙글리가 출생한 생가 빌트하우스. ⓒ김재성 박사

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1536년에 나왔고,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1549년의 "제 2 헬베틱 신앙고백 서"로 연속되어졌다.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를 "상징"하는 것이냐의 츠빙글리 와 "임재"하는 것이냐의 루터의해 석 차이는 끝내 간격을 좁히지 못 하였다. 스위스 지역에서 광범위하 게 영향을 끼친 츠빙글리의 신학은 그 성경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루터 와도 다르고, 부써와도 차이가 있 다. 취리히 교회가 처한 개혁과제 가 달랐기 때문이고, 반대파들과의 쟁점이 달랐다.

츠빙글리도 처음에는 루터와 거 의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 나, 1523년과 1524년에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는 사람이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므로, '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고 해석하였다. 상징하는 것을 가지 고 그것의 본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는 것이다. 츠빙글리의 해석과 비슷 한 견해를 가진 신학자는 네델란드 법학자 호엔과 바젤의 개혁자 외콜 람파디우스였는데, 물질적인 음식 을 나누면서 동시에 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라스 부르그 개혁자 마틴 부써는 성만찬 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 념하는 것이며, 불신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효력 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츠빙글리와 루터의 성만찬에 관 련된 주요 저작들과 그 안에 담긴 성경해석의 차이점들은 1527년 2 이다. 골로새서 2장 11-12절에 근 거하여, 할레와 유아세례의 연관성 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존재하 고 있었기에 할례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다 (롬 4:11-2). 그는 재세 례파 후프마이어와 캬스파르 쉬벤 크펠트의 저술을 비판하면서, 성도 들이 구세주에 대하여 확고한 지식 을 가진 후에 받는다는 믿음의 세례 와 그 이전의 상태에서 받는 세례 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 였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가 어 떤 연령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은혜 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 세례란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선권을 가지 고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 "상 징" (sign)이라고 츠빙글리는 확신 했다. (계속)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chdailyla@gmail.com

www.alexkimntrading.com

323,737,5900 대표전화 David Kim 213.703.7077

<u>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u>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이도 OK)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T_(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_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7)580-2424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 맞게 여행 플렌을 드립니다.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샌클라멘테 피어

11월



발보아 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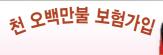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대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 당일



Tel.213,434,1170 Tel.213.739.0403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미주장신 박동식 교수 서평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계시록, 하나님 백성의 승전가 이상명,민종기,박일룡,송병주 성서유니온선교회 | 256쪽

박해와 유혹에 처한 교회에 띄우는 희망과 도전의 편지

창조 이래 하나님 백성이 처한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일곱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영적 매뉴얼인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한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 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 이 가 언제든지 새우깡 어디서나 맛 있게 누구든지 즐겨요 농심 새우깡 ~~" 오래된 TV 광고 노랫말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광고 가사처 럼 손이 자주 가는 책도 있지만 반 대로 손이 자주 가지 않는 책도 있 다. 어떤 책들이 있을까? 그중 아마 도 〈요한계시록〉이 독보적일 것이 라는 데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내용이 난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기 에 손이 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이 오독하는 책도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이렇게 가까이하기에 너무 먼 그 대,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나마 손이 가도록 가깝게 만들어 줄 귀한 책이 하나 나왔다. 성서유니온 미국 서부 사역위원회에서 『요한계시록, 하 나님 백성의 승전가』(성서유니온) 를 출간했다. 이상명총장님(미주장 로회신학대학교), 민종기목사님(충 현선교교회담임), 박일룡목사님(로 뎀장로교회담임), 송병주목사님(선 한청지기교회담임)이 저자들이다. 저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각기 신학, 정치윤리, 교회, 설교와 연관 지어 서 풀어내었다. 요한계시록이 다양 한 색깔을 띠고 있음을 보게 된다.

1장「요한계시록 개론」에서 이 상명 총장님은 요한계시록이 우리 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 님의 내밀한 섭리"에 대한 가르침 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 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강령"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16). 요한계 시록은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두려 운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을 바라며 "마라나타" 를 외치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 다(45).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은 우 리에게 그러한 침울한 종말의 이미 지로 각인되어 있을까? 그것은 요 한계시록이 지니는 묵시문학의 형 태 때문이다. 즉 내부적으로는 "소 통과 공개"의 기능을 하지만 외부 적으로는 "은폐와 차단"의 기능을 하는 묵시문학 형태를 띠는 것은, 있었기 때문이다(17, 26). 외부 사람 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 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러니 계시 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 자들이 이해한 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58).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박해 속에 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님이 계시지 않은 교만한 제국의 멸 망에 대해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고 한다. 그런 바벨론의 멸망을 계 시록 18장에서 다루고 바로 이어 19 장에 할렐루야 찬송 소리가 울려 퍼 진다.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 한 비전이 있게 된다(105-109). 이 것이 요한계시록을 심판과 멸망의 책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 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책으로 보 아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명총장님은 그런 천국의 기 쁨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맛보며 사 는 것이 중요하다 한다. 어떻게 가 능한가? 이렇게 말한다. "평온한 일 상 속에서도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 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 결은 '엔 크리스토'in Christ 혹은 ' 엔 프뉴마티'in the Spirit가 실제 삶 속에서 실행될 때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악이 도처에 기승하고 있 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 과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 니다."(110). 즉 우리가 일상에서 그 리스도 안에 살면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리 수 있다는 의미다.

2장 「요한계시록의 정치윤리」 에서 민종기 목사님은 "정치"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 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115). 요한 계시록을 묵시문학으로 보면 도저 히 희망이라고는 없는 시대에 오로 지 하나님만이 세상을 바르게 통치 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117).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 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통치"(119)라 한다. 요한계 시록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에 맞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참 왕이심을 선포하는 "저항" 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역사의 주 관자"요 온 우주의 통치자, 즉 하나 님으로 고백한 것이다(126-132).

이런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 또 한 이 시대의 정치적 사명이 있다. 첫째, 교회는 사회 변혁을 위해 "기 도"해야 한다. 기도는 중요한 사회 이라."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참여다. 둘째, 교회는 "문명 비판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박해에 직면해 이라는 텍스트는 컨텍스트를 "변 혁"시키기 위해 존재하기에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을 변혁 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선 지자적 증거"가 필요하다. 세상은

부패한 권력을 추종하며 갈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심을 고백하기에 세상에 대한 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이 세상의 그 어떤 제도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 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종말 론적 상대화"이다. 다섯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통치 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 (179-184).

3장 「요한계시록과 교회」에서 박일룡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주 제는 "교회"라 한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일곱 교회"에 주는 메시지 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난과 핍 박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주는" 메 시지이며 "실제적이면서도 목회적 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191)이 라고 정의 내린다. 그런 교회를 두 가지 형태, 즉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201)와 "천상에서 내려오는 승리하는 교회"(205)로 설명한다. 전자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보낸 편 지 마지막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 기를 바라며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는 예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약 속한다. 후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 는데 그것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 는 신부의 단장한 모습, 즉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207).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 시 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 가?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 네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지금 비 록 교회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으 로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 한계시록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영 광스러운 종말의 승리한 교회의 모 습"으로 끝나기에 그 모습을 확신 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알자. 둘째, "네 주를 바로 알아라." 교회 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신 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피 흘려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에 예 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 이 된다. 셋째, "네 원수를 바로 알 들을 박해하는 사탄과 맞서 싸우라. 그들이 비록 힘이 있고 두려운 존재 일지라도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 수님이 있기에 그 싸움의 결과는 자 명하다. 넷째, "네 사명을 바로 알아 라."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 은 "하나님의 군대"이기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 이다. 다섯째, "네 상급을 바로 알아 라." 교회는 박해만 받는 존재가 아 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 기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을 권 면한다(224-232).

4장 「요한계시록과 설교」에서 송병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대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오해와 왜 곡"이 아니라 "두려움과 무지"(237) 라 한다. 잘못 해석할 것에 대한 두 려움 때문에 읽지 않으니 무지하고 무지하니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요한계시록 과 친해"질 필요가 있다(238). 계시 록을 설교하자면 우선은 읽어야 한 다. 설교자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관점 세 가지 를 설명한다. 첫째, 숨기려고 쓰신 것이 아니라 "계시"의 의미처럼 보 여 주려고 쓰신 것이기에 드러난 그 대로 보면 된다. 둘째, 계시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666도 적그리스 도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 셋째, 계시록은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시기에 창세기가 계시록에서 완 성된다고 본다. 넷째, 계시록은 특 별집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를 향한 서신이다.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는 의미다(241-248).

송병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설교할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라 한다. 요한은 믿음의 동 역자들이 죽어가는 현실 속에 "나만 남았다"는 허무한 절망 속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십사만 사천 명 의 예배자들을 보면서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처럼 우리도 주 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증거해 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252, 254).

저자들은 모두 LA에서 사역하 고 계시다. 이 책을 통해 LA 지역 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요한계 시록에 대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 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 기를 소망한다. 이제 이 한 권의 책 으로 서두에서 불렀던 새우깡 광고 노래 가사를 조금 개사할 수 있었으

"손이 가요 손이 가 계시록에 손 이 가요 아이 손 어른 손 자꾸만 손 이 가 언제든지 계시록 어디서나 손 쉽게 누구든지 읽어요 요한 계시록

박동식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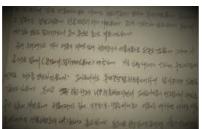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

지하숙소복원과 북념동족(어린이)들에게 사건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 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숱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_'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북녘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I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체크오더명)로 기입해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연말세금공제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함께할 비영리지원단체를 찾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는 한인사회,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돕습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미주 지역사회 곳곳의 건강과 복지향상 보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과 사랑/나눔을 함께 하실 **기독교 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openstewardship.com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재단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7